

[ 시티 & 피쳐 ]



살아있는 5·18

해 교류·상생의 장

모든 국제연대, 광주로 통한다

5·18이 광주를 국제사회 교류와 소통, 그리고 연대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처음에는 인권과 평화·민주의 성지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로 새로운 출정을 시작했다.

교류와 소통의 중심에는 지난 99년 제정된 광주인권상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광주국제평화포럼이 있다.

역대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나 국제평화포럼 참가자들이 5월 정신을 통해 자국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국제연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광주 국제평화포럼에 세계 인권 활동가 40여명이 찾았다. 이들 가운데 10여명은 '5·18기념재단'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자비로 광주에 왔다. '2005 광주아시아인권포럼'에도 인도·네팔·몽골 등 아시아 14개국의 22명이 참가, 광주민주화운동 등 아시아 민주화 운동을 공부하며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기념재단 김찬호 국제협력팀장은 "에년에 비해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광주 방문의사를 밝힌 외국인들이 부쩍 늘었고 특히 항공료를 스스로 부담하고라도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활동가들이 많았다"면서 "참가자들은 인권

백박을 모두 합하면 지난 2003년에는 53만1천 991명, 2004년에는 59만9천310명, 지난해에는 57만8천646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광주는 이런 가운데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서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다.

80년 5월의 역사적인 현상이었던 옛 전남도청 자리에 국립 아시아문화의 전당을 세워 '아시아의 문화 발전소'로 거듭나겠다는 전망이다. 광주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인큐베이팅사업에 착수해 아시아 각국에서 온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만 하더라도 이제 단순한 묘지가 아닌 교류와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참배객들에게 당시의 실상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18묘지를 참배하는 외국인 수도 2004년 2만9천여명에서 2005년 3만6천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참

배객을 모두 합하면 지난 2003년에는 53만1천 991명, 2004년에는 59만9천310명, 지난해에는 57만8천646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광주는 이런 가운데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서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다.

80년 5월의 역사적인 현상이었던 옛 전남도청 자리에 국립 아시아문화의 전당을 세워 '아시아의 문화 발전소'로 거듭나겠다는 전망이다. 광주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인큐베이팅사업에 착수해 아시아 각국에서 온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만 하더라도 이제 단순한 묘지가 아닌 교류와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참배객들에게 당시의 실상을 보다 생생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5·18묘지를 참배하는 외국인 수도 2004년 2만9천여명에서 2005년 3만6천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참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녹색도시'로 변모하는 광주

광주시민 700여명이 지난 3월 23일 '자기나무 갖기 운동'에 동참해 광주시청 옆 공터에 심은 느티·매화·야광나무 등 750그루의 나무가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짙푸르게 우거지고 있다. <사진> 광주시는 16일 '천만그루 나무

심기 종합계획'에 따라 올 봄에도 110만 그루의 나무를 광주시내 일원에 심었고, 하반기에는 40만그루를 더 심는다는 계획이다. 또 담장 허물어 소공원 조성·조각갈 피яти기도 계속한다.

임희진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들이 내 집앞 빈터 등에 저마다 심어 준 덕분에 광주가 녹음의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위권기자 jrwi@kwangju.co.kr

'5·18기념 상설 홍보관'

광주지하철 도청역에 개관

광주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오영원)는 5·18기념재단과 함께 이달말까지 지하철 도청역에 '5·18기념 상설 홍보관'을 조성·개관한다.

홍보관은 ▲항쟁의 장 ▲역사의 장 ▲민주화의 장 ▲문화의 장 ▲5·18 실록 등 5개관으로 구성되며 관련 사진과 신문 기록·성명서 등이 전시된다.

또 홍보관에서는 5·18유적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5월정신을 시민생활 속에 되살리는 민주화 교육과 문화 공간을 활용된다.

오영원 사장은 "도청역은 5월 영령들의 고귀한 넋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며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우는 교육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전남 징병검사

오늘부터 2만1천명

2006년 광주·전남징병검사가 17일부터 오는 11월 24일 실시된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징병검사 대상자는 1987년 출생자와 1986년 이전 출생자로 총 2만1천명여 이른다.

병무청은 지난해 대학생에 한해 방

학기간에 검사 일자를 선택하도록 했던 것을, 올해부터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로 확대했다.

개별별 징병검사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실시간 공개' 코너에서 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징병검사 통지서는 징병검사 20일 전까지 본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송된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상담, 생활안내, 신고... Table with various services and prices.

"5월 광주는 아시아 민주화의 등불"

2006년 '광주인권상' 수상 태 니라파이짓 여사

"민주성지 광주가 주는 인권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두 손밖에 없지만, 인권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UN에 '강제실종 방지 국가비준'을 제정토록 청원하는 등 태국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된 양카나 니라파이짓(여·49·태국)씨가 16일 상을 받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그녀는 "5·18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평가하고, "광주시민들도 개개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5월 정신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의 인권관을 피력했다.

니라파이짓씨는 지난 2003년 인권변호사인 남편 솜차이 씨가 실종되면서 인권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니라파이짓씨는 남편의 실종을 태국 정부에 고발하는 한편, 갖은 살해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남편 실종과 관련한 경찰 2명을 법정에 세워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광주 인권상'의 수상자로는 니라파이짓씨 외에 여성문맹퇴치에 앞장 서온 말라라이 조아(여·28·아프가니스탄)씨가 공동으로 선정됐다. 조아씨는 영국에서 열리는 세미나 관계로 수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보냈다. 5·18기념재단은 이들에게 18



일 광주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금강 메달과 상금 2만5천 달러를 수여한다.

/임정희기자 jhlim@kwangju.co.kr

/사진=최해기자 choi@

m.o.v.i.e.s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립연극관... Megabox... 영화안내

엔터시네마... 주창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하남점... 콜롬버스 시네마

한일지도(주)...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한일지도(주)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시일본... 대인동심일부동산

일가공인중개사...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일가공인중개사

믿음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매도... 믿음공인중개사

하이링크 컨설팅... 구해드립니다... 팔아드립니다... 하이링크 컨설팅

전원공인중개사... 도지매도... 전원공인중개사

한일지도(주)...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한일지도(주)